이것만은 알고 키우세요!

لاق을 고거나 공급하고 계란이나 공급하는 마련한 생물로만 생각하기 앞서 정성을 다해 애태를 갖고 관리해 나가다면 닭의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산성향상에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육자가 닭의 생리를 좀 더 이해해서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뜻에서 피력해 보았다.

〈먹이일반〉
닭은 결코 마련하지 않다. 신선한 동물이다. 거짓말 없고 꾸립없는 동물이다.

그련데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 통행이다. 반으려고 만 하였지 줄줄은 모른다. 깊이 이해하고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서 좋은 결과〈비결〉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령질 못한다.

이제부터는 무엇인가를 알고 찾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원가 실험을 가져올 수 있고 능력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고에서

1. 닭은 결코 마련하지 않다.

2. 몰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세매, 자연법칙 파괴범
4. 내매, 특성(성질)
5. 다섯째, 능력껏
6. 여섯째, 스트레스(stress)
7. 일곱째, 제안 이상 임금가지에 대해 좀더 많이 생각해보면.

김 형권
천호부회장 생산부

- 120 -
그런데 여기에 이점에 대해서 어\n 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n 담을 이해하지 못한답서 담자체를\n 파괴해 버린다. 담의 특성(개성)을\n 잘 알아야 되지 않았었던지요?\n
그리고 거기에 최선의 방법으로\n 대처해 주어야지 않겠는지요? 단\n 순하고 답답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n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물이기\n 때문에 단순한 것 뿐이다. 그것이\n 마음이 될 수는 없다. 정점과 특성\n (성질)을 개발해 그것이 문제가 되\n 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n 효과적으로 이용함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모를\n 때문에 문제가 되어 버렸다. 큰 큰\n 장애요인이 되어 버렸다. 무시하고\n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이 없기\n 때문에 힘으로 다룬다. 연구하며 생\n 각해보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찾기\n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능과 특성이 단점\n 으로 일방통행이 되어버렸기 때문\n 에 사항할 수 없었고 좋은 결과를\n 창출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n 제 자신도 어려운 이야기라고 느껴\n 진다. 그러나 명정히 생각하여야 된\n 다. 주는 것없이 받아 수는 없다.\n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n 결과를 바랄 수는 없다.\n
우리인가 정성 가운데에서 자세히\n 관찰하고 이해하며 사람 가운데에\n 서 우리 모두가 더욱 좋은 결실이\n 나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결론은\n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n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여야 한다.

여런 일에 문제점이 최선의 결과\n 가 될 수도 있다. 원을 절약할 수\n 있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n 법이 개발될 것이다. 저 자신도 이\n 문제를 통하여 몇가지 얻은 것이\n 있다. 이제 우리는 담은 걸로 미련\n 하지 않고 생각해야한다. 악정과\n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n 하여 부단한 노력을 합시다.

2.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n 담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n 아니다.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야\n 한다. 주인은 경영능력이 있어야\n 하고 자기 환경에 맞는 능력을 발휘\n 할 줄 알아야 한다. 순라대로 해야\n 한다. 담을 자체히 알지 않고서는\n 성공하기 어렵다. 새로운 기술을\n 개발해야 한다. 오랫동안 경험과 실\n 무가 무척이나 요구된다. 이론은 기\n 본이다. 기본만으로 다 되는 것이\n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 하나 하나에\n 최선의 정성이 요구된다. 단계적으\n 로 생각해 보면

첫째 자기 능력에 맞는 환경이다.\n 담을 알고 나면 환경을 극복할 수\n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여기에서발\n 한 환경을 사설이나 자기 위치조건\n 기타 문제점을 말한다. 사설및 흔\n 규모, 경영규모를 효율적하게 자\n 기 능력에 맞게 세장요 요리를할\n 있으면 첫단계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n 생각한다.

둘째 사망관리이다. ①육수 ②육\n 성 ③생계관리로 크게 나눌 수 있\n 다. 이 세 가지는 공통의 목표와 결\n 과를 위해서 존재한다. 한가지라도\n 하술하게 지나낼 수는 없다. 정상의\n 능력을 징후하면 먼저 담을 이해\n 하고 사망하며 관리사항 하나하나\n 에 예목을 하나하나 풀어야가야될\n 것이다.

육수방법
육성방법
생계관리방법
비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효과도 끼어낼수 있\n 다. 저 자신도 연구하고 있으며 및\n 가지에 대해서 정리가되고 기회가\n 주어진다면 다시 지면을 통해서 써\n 보겠습니다.

3. 자연법칙 파괴법
자연은 순수하다. 놀라운 힘을 가\n 지고 있다. 몰입없이 창조되고 회생\n 되기도 한다.

현 세대는 일방적으로 자연을 파
과만 하고 있다.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생각이 무디어지고 자연에 소중함을 맛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자연을 길이 생각하고 이해하여 보아야 된다.

앞도 근본은 자연의 일부였다. 사람이 개별화했으니, 그리고 끝없이 이개량해 나가고 있다. 개량함수만 없어도 근본적인 자연에 순수성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희생향 요구가하였던 담의 입장은 생각가지 않는다.

특히 변란된 사람이면 담의 입장도 점에서 생각할줄 알아야 된다. 그 가운데에서 정신과 이해가 더욱 좋은 절정(결과)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나타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우리는 순수한 자연의 방법도 이해할수 있는 여유 마음을 갖고 더욱 폭넓게 담에 대해 서 연구가 필요하다.

4. 특성(성질)

담은 단순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변화를 가장 심어한다. 그리고 점이 많고 어려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한마디로 그림면 다른 모든 재난에 놀란다. 의료학적(역학)적인 맛은(바보는)담보다 대체적으로 성적이 낮은 것만 보이도 담의 성능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가 있다.

첫째 담은 안정을 바라고 있다. 
둘째 환경에 민감하다.
셋째 변화를 싫어한다.
네째 단순하고 본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관리학에 있어 최대한 스트레스(stress)요인을 제거 해 주어야 한다. 좋은 환경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해 주어야하며 계사 소독은 어렵게 하는 것이 좋다. 21:00~22:00시.
계사 내부 시설이나 계사내 행동을 살펴가려마귀 관리지도 휘가운 눈에 익은 복장, 휘가지 복장으로 통일해서 변화를주지 말아야되며 모든 몇이 담을 안정시키나 사료효율 및 질병 기다 산란율 모든 것에 좋은 결과를 줄것이다. 개개인 스스로 많은 정신이 요구된다.

5. 능력

제반 요건이 절대적인 상황아래서 능력,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 다. 해보아야 되겠다고나가 강조한 다면 담당한 친구, 능력해 해보리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나? 반 문할 사람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독특히 많은 상황, 불리한 외적요인 주어진다해도 좋은 결과는 좋은열매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보존해줄 것이다. 강조하긴 싸운 것은 어떤가가 생기기전에 예측하여 예방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다시 나가 하는 일에 결과도 예측하여보릴 필요가 있다. 자기 스스로 작하고 있다 생각할지라도(예사 가있고, 욕심은산란율이 좋다 할지라도) 일부적 한순간 헤어짐이 노출된다면 상당할 피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에 더 좋은 결과 우리생물이나 산란율이나 ③사료효율이나 ④개 가질감이나 ⑥관리개선문제 등등 알려진 못알은 사사는 더넣게 드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경영의 시대에 경영에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가 부족해서, 귀찮아서, 돌려서, 무식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관리사항에 있어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그리고 게식해야 하는 것이다. 관리, 이동시, 점령시, 의적, 내적, 모든 문제에 한기지 한기지 개선한 다면 닭은 충분한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근본적인 문제로 경영개선 원가절감 능력향상을 기
합시다.

7. 제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평범한 마음으로 무식하게 기술하지 않으셨는지 모를까. 없어드릴 필요없는말도 하셨으리라 생각된 다.
최근에 한자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
다. 더 연구하고 확실한 결과가 나
타날때 말씀드리실 수 있을 것 같다.
천호부화장에서 수년간 생활하면서
체계적인 농장운영방침 자유의지가
상당한 힘이 된다. 여기에 몇가지
여러양계 종사자에게 근본적인문
제를 제시하여야 되겠다!
이것이 참고가 될 수 있다면 뜻이
있는 일이 아닌가에서 요점만 두서
없이 적었다. 한기지 결론을 붙인다
면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 혹은 문제
가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수
없어 보이다. 경영예측, 결과예측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더 낚은 읍주, 유성, 산란용, 파란
문제, 사료효율, 계분문제, 원가절
감문제 등등 복잡한 것 같지만 근
본적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연구노
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무한한 양계 발전을 기원할 뿐이다.

ND · EDS
혼합오일백신

국내최초로
오일백신 개발에
성공!

ND 오일백신
EDS 오일백신

NE오일백신은
1. 면역이 잘되고
2. 면역이 오래 지속되며
3.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NE오일백신은
500수분 (250ml)에
W 38,000원입니다.

능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례시장구남동1031-29
☎ 582-9181-5
본사 · 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길리227-5
☎ 수원인3423/4